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2. 9. 5.(월) 06:00 ~ 23:00
- 상담건수¹⁾: 1,187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

-프로그램명 : 「리슨 업」

-방송일시 : 2022. 9. 3.(토) 2TV (22:40-24:20)

이날은 팀 대결로 진행되는 3라운드의 최종 결과와, 4라운드 테스트매치가 그려졌다. 특히 4라운드 미션은 3라운드에서 팀 미션을 함께 했던 프로듀서들이 서로 대결 상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긴장이 되어 손에 땀을 쥐고 시청했다. 대한민국 TOP 프로듀서 10팀이 음원 차트 점령을 목표로 펼치는 대결이 갈수록 흥미진진하다.

○ 방송 제언(4명)

-프로그램명 : 「주진우 라이브」

-방송일시 : 1R (월-금) (17:05-18:56)

탐사보도 전문 주진우 기자가 진행하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진행자가 편파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많고, 특정 정치 성향인 패널들이 집중적으로 섭외되는 경향이 있어 방송이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여겨진다. 앞으로는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기대하겠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전국노래자랑’ 외 4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7.1일부터 프로그램별 인터넷의견은 보고서에서 제외함.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187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574	41	1	-	571	1,187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555	445	18	-	-	169	1,187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228	959	-	1,187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946	7	116	118	1,187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전설의 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속 제작 요청 ○ 「추석 특선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 호평 ○ 「열린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방송 편성 요청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 불만한 아침 M&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제언 <p>【연예·오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슨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경영의 최강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제언 ○ 「주진우 라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제언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TV 생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떡집’ 연락처 문의 115건 ○ 「일일연속극 으라차차 내 인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 문의’ 43건 ○ 「KBS 뉴스특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 불만’ 18건 ○ 「가요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 문의’ 18건 ○ 「6시 내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 문의’ 17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6건 ○ 「수신기술」 문의 1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58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21건 ○ 「전화교환」 문의 16건 ○ 「수신료」 문의 15건 ○ 「건축」 문의 4건 외 2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진 문의사항 포함 118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후속 제작 요청	<p>○ 「2009 전설의 고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8. 10.~2009. 9. 8. 2TV 방송. (총 10부작) - 어린 시절에 「전설의 고향」을 무척 좋아했다. 귀신이나 괴물이 나오는 장면이 많아 가슴 졸이며 시청하곤 했다. 마무리에는 권선징악의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유익한데, 2009년 종영이 된 후 후속 방송이 제작되지 않아 아쉽다. 그때의 감성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편성 호평	<p>○ 「추석 특선영화」 ‘신의 한 수 : 귀수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9. 9.(금) 2TV (23:50-24:50) (방송예정) -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각 방송국에서 어떤 특선영화를 편성할지 기대가 된다. KBS에서는 올해 추석에 바둑으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살아남은 ‘귀수’가 내기 바둑판의 세계에서 귀신같은 바둑을 두는 자들과 사활을 건 대결을 줄거리로 다룬 ‘신의 한 수: 귀수편’을 편성했다. 독특한 스타일의 범죄 액션 영화를 편성해주어 감사하고, 재미있게 시청하도록 하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재방송 편성 요청	<p>○ 「열린음악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9. 4.(일) 1TV (18:00-19:00) -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다채롭고 화려한 무대들을 볼 수 있어 눈과 귀가 즐겁다. 오랜만에 가수 김희재가 출연하여 반갑고 즐겁게 시청을 했다. 이토록 시청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장수 프로그램인데, 재방송 편성이 없는 점이 아쉽다. 고정적으로 재방송을 편성해주시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시사·교양]	
진행자 제언	<p>○ 「해 볼만한 아침 M&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9. 2.(금) 2TV (07:00-09:00) - 다양한 생활 정보부터 고품격 지식 정보까지 전달해 주어 방송을 시청하며 평일 오전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다. 그런데 진행자 박재민 씨의 지나치게 오버스러운 리액션과 표정으로 인해 방송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또한 패널과 여성 진행자에게 자주 고개를 좌우로 번갈아 질문하는 태도로 인해 시청하기 불편하다. 편안히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박**</p>
[연예·오락]	
방송 호평	<p>○ 「리슨 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9. 3.(토) 2TV (22:40-24:20) - 이날은 팀 대결로 진행되는 3라운드의 최종 결과와, 4라운드 데스매치가 그려졌다. 특히 4라운드 미션은 3라운드에서 팀 미션을 함께 했던 프로듀서들이 서로 대결 상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긴장이 되어 손에 땀을 쥐고 시청했다. 대한민국 TOP 프로듀서 10팀이 음원 차트 점령을 목표로 펼치는 대결이 갈수록 흥미진진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라디오]	
진행자 제언	<p>○ 「최경영의 최강시사」(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R (월-금) (07:20-08:57) -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이다.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에 대한 직격 인터뷰부터, 그날의 시사 이슈를 골고루 다뤄주어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진행자가 정치 성향을 드러내 듣기 불편할 때가 많다.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방송 제언	<p>○ 「주진우 라이브」 (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R (월-금) (17:05-18:56) - 탐사보도 전문 주진우 기자가 진행하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진행자가 편파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많고, 특정 정치 성향인 패널들이 집중적으로 섭외되는 경향이 있어 방송이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여겨진다. 앞으로는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기대하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